

동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7호 [루계 제2230호]

주제 102

(2013). 6

29

토요일

음력 5. 21

6. 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자강도의 여러 공장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제품진열실에 들리시여 공장에서 생산한 기계제품들을 보아주시며 새 제품개발사업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에서 준 파업을 철저히 관찰하기 위한 출기찬 투쟁을 벌려 우리식의 새롭고 현대적인 기계제품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어려운 난관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신심높이 달라붙고 있는 정신이 좋다고 하시면서 공장현대화에 필요한것이 무엇인가를 물어주시고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가공직장과 조립직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작업장마다에 준비하게 늘어선 현대적인 기계들과 프레스들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여리가지 가공품들을 기쁨속에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새로 건설한 수영관과 체육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구내식당과 콩가공장을 돌아보시면서 후방공급사업실태를 료해하시였다.

식당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로동계급이 출연하는 대합창공연 《백두산협통으로 빛나는 우리공장》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로동계급이 당과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하며 당의

로선과 방침을 관찰하는 길에서 기수,

돌격대가 되려는 자기들의 심정을 그대

로 반영한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



장자강공작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품개발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이루하리라
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로
동계급이 출연하는 대합창공연 《백두
산협통으로 빛나는 우리 공장》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로동계급
이 당과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하며 당의
로선과 방침을 관찰하는 길에서 기수,

돌격대가 되려는 자기들의 심정을 그대

로 반영한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

여 만족을 표시하시고 공연성과를 축하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강계정
밀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사
적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에
서 생산한 기계제품들의 성능을 료해하
시고 일용필수품들도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소재가

공작장, CNC자동화작장, 조립작장, 완

성작장 등 여리곳을 돌아보시면서 설비

들의 가동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앞
에 나서는 공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조선로동당의 믿음

과 기대를 언제나 잊지 않고 생산과 경
영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
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장자강공

작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전본들을 보아주시면서 기술적특성과 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프레스직장에 들리시여 소재가공정형을 료해하신 다음 무인화작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CNC공작기계와 로보트로 이루어진 유연생산세포와 무인소재운반차, 자동창고 등으로 이루어진 무인화공정을 보시면서 기술준비, 생산준비, 제품구성변화를 비롯하여 복잡한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생산능률과 제품의 질, 생산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된데 대하여 커다란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쌍동이형제들이 김혁철과 김현철의 인사를 반갑게 받으시고 앞으로도 일을 잘하기를 축복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일성상을 정중히 보신 무인화작장의 생産현장에서 일군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기계가공작장을 무인화한 경험과 토대에 의거하여

전반적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공장을 더 잘 꾸리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를 몸소 풀어주시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종업원들이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생산과 건설에서 높은 성과를 이루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자강도의 로동계급들과 함께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고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자강도의
로동계급들과 함께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번에 강계시
안의 여러 공장들을 돌아보면서 조선로
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정
신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결사관찰하기
위해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로동계급들의
힘찬 투쟁 모습을 목격할수 있었다고 하

시면서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강계정밀
기계종합공장, 장자강공작기계공장, 로동
계급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
사를 주시였다.

공장들에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더 높은 수
준에서 실현하며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
게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고 후방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강도
로동계급앞에 나서는 전투적파업을 제시하

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자강도
로동계급들의 앞길에 언제나 영광만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맡겨
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
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공화국에서는 령도자와 인민이 편지와 친필서한을 통해 마음속 대화를 나누는 것이 범상한 일로 되고 있다.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맺어지는 사회에서라면 이런 일을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 인민이 충정의 편지를 올리고 령도자가 사랑의 친필을 보내준 데가 어디에 또 있었던가.

한 재미동포는 자기의 글 『조선—하나의 대가정』에 이렇게 쓰바 있다.

『나의 정사를 돌보시느라 시간이 바쁘신 일국의 령도자께서 유치원 아이들로부터 인민들에 이르기까지 기쁜 일, 피로운 일 모두 적어 올린 편지를 다 보아주시고 사랑과 믿음의 친필을 보내주시는 나라는 북 말고 세상 어디에도 없다.』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마도 민기 어려울 것이다. 한나라의 정사를 돌보는 령도자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편지를 받고 꼭꼭 친필까지 보낸다. 그러나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실이다.

공화국에서 령도자와 인민은 입금과 신하의 관계가 아닌 한가정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혈연적 관계에 있다. 한마디로 뜻과 정을 나누는 관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마음속에 언제나 인민이 있고 인민의 마음속에 원수님께서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있어서 제일 기쁜 때는 군인들과 인민들 속에 계시는 때이다. 그이의 전선시찰, 현지지도소식에 접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가정의 어머니처럼 부드러운 음성, 차에 깊은 눈빛,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만사람을 감동케 한다. 병사들과 인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가야 한다시며 장재

령도자와 인민의 마음 속 대화

도와 무도, 월내도 등 섭초소며 오성산과 같은 위험천만한 최전 연초소에까지 찾아가시여 군인들과 인민들의 귀숙말도 들어주시고 귀여운 어린이들을 만나시면 다정히 품에 안아 불을 다독여주시는 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울려나오는 『만세!』의 함성, 정겨운 그 미소 오래도록 빠져나온 허리치는 물속에 뛰어들어 원수님을 바래우던 군민의 충정스런 모습들은 절대로 꾸며낼 수 없는 혼연일체의 화폭이다.

조국의 운명과 인민의 안녕, 행복을 위해서라면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위대한 어버이를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 시고 어버이정에 걸려 운명을 맡기고 그 뜻에 매혹되어 심장을 바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라 인민이다.

이민위천의 높은 뜻을 지닌 령도자의 무한한 헌신성, 겸허한 풍모에 반하여 사람들은 어려워도 잊고 그이께 소박한 사랑, 마음 한구석의 생각까지 허물없이 아뢰어는 것이다. 각계총 인민들이 올린 편지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해 아려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워준 은혜로운 품, 떳떳치 못한 과거를 스스로 없이 떠나온 사람들에게 재생의 밝은 빛을 안겨

준 운명의 보호자에 대한 고마움의 토로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그 많은 편지들에서 인민들의 진정을 읽으시였고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몸소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필은 단순한 수표나 회답서한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의 결정체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인민관을 그대로 체현하신 그이의 친필들에는 각계총 인민들의 소박한 성파,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 값높은 평가가 있고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

가 그들의 아픔을 가서 줄데 대한 당부, 어버이 장군님의 사랑이 수도시민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할때 대한 사랑의 당부도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본인이나 가문의 떳떳치 못한 과거를 두고 가슴앓이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숨김없이 스스로 터놓고 조선로동당을 밟고 고향의 결의를 담아 올린 편지에 새겨주신 믿음의 글발은 또 그 얼마나.

그이께서 학경남도 영광군 장흥리에서 사는 귀화한 일본인녀성이 삼가 올린 편지에 보시고 보내신 친필에도 자식이 잘되길 바라는 어머니의

옹심깊은 사랑이 그대로 어려 있다.

『우리 당은 가슴속에 아픈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더 깊이 품어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식의 아픔을 놓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며 어루만지고 설점도, 피도 서슴지 않고 주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자식이 잘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그것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생의 립으로 여기는 것이 이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을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철호동무가 꿈에도 소원하던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데 대

다정히 불러주시며 백점, 만점이라고 치하해주시고 손수 빨간 편지에 그려주신 원수님의 은정 어린 친필은 자신의 창한 일을 놓고 기뻐하며 그의 미래를 축복하는 친부모의 진실한 감정이 그대로 비껴있는 회답서한이다. 이것을 어찌 그 몇몇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이라 하겠는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밝은 빛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다.

친필들에 어려 있는 사랑과 믿음의 높이와 무게, 폭과 심도는 자로도 저울로도 셀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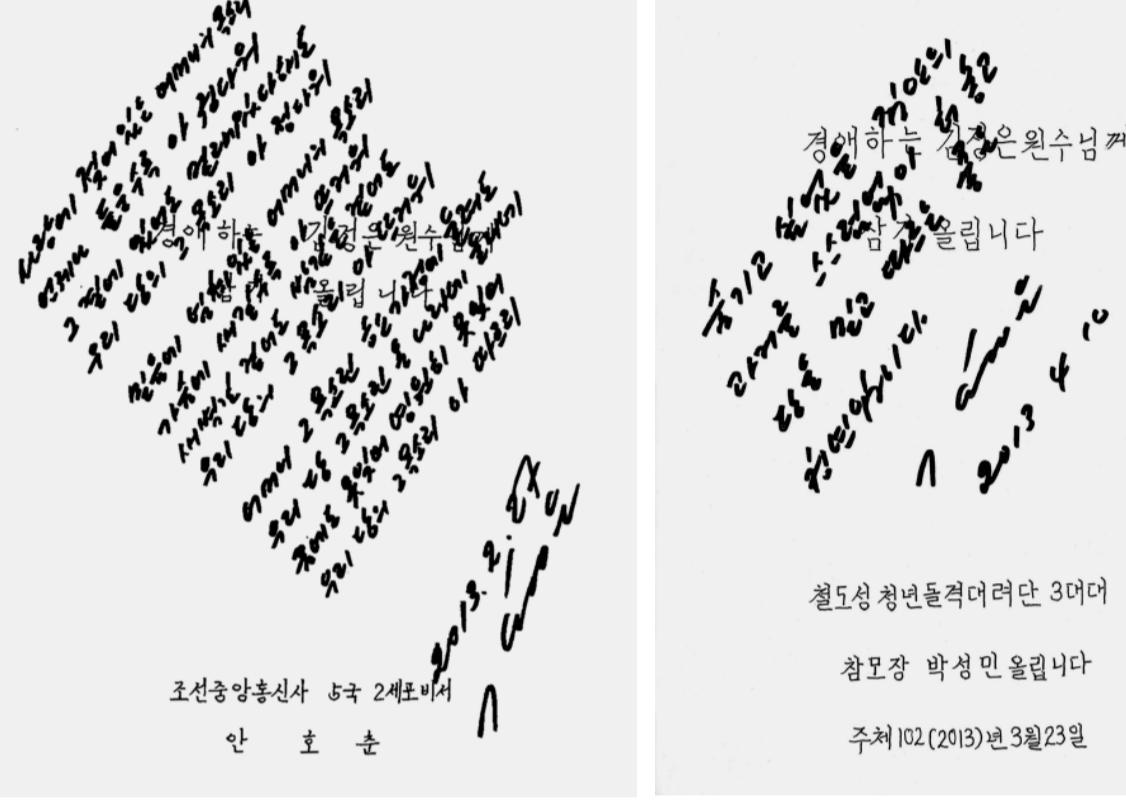
친필을 세겨보느라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은 항일의 나날 『민생단』의 혐의를 쓴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용단을 내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 가정주위 환경이 복잡한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신 김정일장군님과 꼭 같은 뜨거운 인정미, 넓은 포옹력과 아랑을 체현하신 분이 심을 대변에 알수 있다.

그이께서 꼭 많은 운명을 지닌 가정, 사람들의 말 못하는 고충을 해아리시고 보내신 사랑과 믿음의 친필은 령도자의 숭고한 덕망, 인민 사랑의 새 전설로 오늘도 전해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필들은 대상의 심리와 특성에 맞는 섬세한 표현, 통속적인 표현들로 되어있다.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기 위해 아침저녁 소원은 하나원수님의 안녕이라고 심장으로 노래하는 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이 뜻과 정으로 이어지는 혈연의 관계,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런 혼연일체의 성세는 그 어떤 힘으로도 허물수 없다.

심영철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비서
안호춘

철도성 청년들격려려단 3대대

참모장 박성민 올립니다

주체 102(2013)년 3월 23일

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에 의해 건설되는 거창한 창조물이며 문명국 상징의 하나이다.

지난 5월 건설현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진

들은 불과 한해도 되나마나한 사이에 천연바위들과 험한 산발들을 꺾아내고 수십만m²의 면적에 총연장길이가 십여km나 되는 스키주로들을 형성하였다. 기적 같은 일이다. 불굴의 정신력과 국족충정으로 공사장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일민군장병들의 혁신적 성과를 해아리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고 전체 인민에게 호소문을 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호소문에서 군인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과 완강한 돌격전으로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스키장건설을 올해 안으로 끝내며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킬데 대해 지적하면서 『마식령속도』는 단승의 정신으로 화약에 불이 달린 것처럼, 폭풍처럼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속도라고 하시였다.

직접 호소문을 쓰시여 새로운 『마식령속도』 창조에로 전체 군대와 인민을 불러일으키는 원수님의 령도방식, 령도예술은 참으로 비상하다.

마식령스키장은 이 땅 위에 하루빨리 사회주의 문명국을 세우시며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

야, 대혁신의 불길에서 강성번영하는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전체 군대와 인민을 불러일으키신 원수님이시다.

마식령스키장건설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미국과 그 주종세력들이 공화국의 평화적 위성발사와 자위적 행시험을 두고, 공화국의 병진로선을 비방중상하며 고립압살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지만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선군조선의 앞길을 가로막을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겪쌓이 고 해야 할 일이 무겁고 방대할수록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한다면 반드시 하고아는 기질과 본분에 애국위업을 수행하는 것은 공화국인민의 자랑스러운 령도사이고 전통이다. 일찌기 1950년대 조선전쟁을 일으키고 공화국을 폐허로 만든 미국이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

그이의 시간

반미대결전이 첨예하게 벌어지던 지난 세기 90년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날 6,000여 리 눈보라길을 해치시며 자강땅을 찾으시여 그곳 사람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평가하시며 강제정신으로 내세우셨고 성강과 강선의 봉화를 지펴주시며 온 나라에 대고조의 열풍을 안아오신 장군님의 애국의 호소에 떠받들려 이 땅에는 시대를 빛내이고 세월을 주름잡는 희천선도와 같은 놀라운 진군속도, 새로운 공격속도가 령이어 창조되며 되었다.

속도는 끝 시간을 의미한다.

오늘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비

롯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부문,

분야에서 흐르는 분분초초는 령도사의 애국의 호소와 발

걸음에 전체 인민이 몸과 마음으로 화답하고 숨결을 함께

하는 날과 달로 이어지고 있다.

령도자와 인민이 서로 어깨걸고

이루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필은

전체 군대와 인민에게 전해졌다.

그이의 시간은

팔을 끼고 거창한 창조와 놀라운 혁으로 강성국가의 래일을 미충고 있는 것이다. 령도자의 구상과 결심이 서면 전체 인민이 하나가 되어 따르고 받들며 떨쳐나서는 것은 마치도 번개가 치면 온우가 우는 불가분리의 법칙과도 같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으로 되고 있는 것이 공화국의 현실이다.

오늘 고산파수봉장으로부터 보성버섯공장, 평양기초식품공장, 창성식료공장, 대관유리공장, 강제드락도르종합공장, 안주 송학협동농장 등 나라의 방방곡곡으로 불철주야로 이어지는 그이의 정력적인 현지지도는 『마식령속도』에 박차를 가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시간을 주를 잡아 달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새로운 진군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해가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머지않아 강성번영하는 문명국에서 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전세권

남조선의 한 주민이 2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있은 재판과정에

공화국을 찬양하여 법정을 뒤흔들었다.

그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기간에 인터넷에 공화국에 대한 소개, 창양 등의 글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의 숨결로 호흡하며 령도자의 발걸음에 군대와 인민이 발걸음을 맞추어나가는 공화국에서 령도자가 번개를 치면 온 나라가 령도로 화답하는 격으로 모든 일이 단숨에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초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전체 군대와 인민에게 령도사의 애국의 호소문을 보내시였다.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찾으시고 군인들이 발휘한

과감한 공격정신과 돌격속도

를 통하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적현상과 열정을 해아리신 그이께서는 그에 의거하여 강성부흥의 활로를 열어나가실 드림없는 의지와 확고한 결심을 호소문에 한자한자 담으셨다.

그이의 원대한 애국의 리상과 부모가 맥박치는 호소문에는 인민이 세상만복을 누릴 휘황한 래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줄수 있는 지름길이 명시되어있다.

이북은 어떤 제국주의의 길만이 애국주들이 자신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강화한다는 것은 지도자와 당, 군대, 민족이 일심단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북의 지도자는 이북의 지도자와 당, 군대, 민족이 일심단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북은 어떤 제국주의의 무력침공도 막아낼 수 있는 물리적전쟁억제력을 강화하였다. 평화는 구결과 간청, 타협의 방

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로지 강력한 무력으로써만 정취하

고 수호할수 있다. 궁궐

김현환(재미동포)

흥모의 마음 어린 선물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해외동포들이 올린 선물들 중에서



↑ 『사각꽃칠공예함』, 『동근꽃칠공예함』(제6차 미주지역 해외동포 조국방문단, 1989. 2. 17)

← 옥돌공예 『복송아』(중국 료녕성 리춘화, 1992. 4. 8)

위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을 뒤 흔 든 남조선 주민의 웨 침

들을 올린 혐의로 『보안법』에 의해 구속기소되었다.

법정에서도 그는 자기의 주장

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징역형이 언도될 때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불러 파소당국을 기절초풍게 하였다.

이를 트집잡아 사법당국이 이번에도 파쇼악법에 걸어 기소하여 재판돌을 벌려놓았지만 징역형을 언도받는 자리에서 그는 또다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소리높이 웨쳐 파소당국을 전률케 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이 높아가는 공화국에 대한 동경과 령복통일기운을 그 어떤 파쇼의 쇄사슬로도 결코 가로막을 수도 얹누를수도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눈물의 언덕에서 수령님의 전사,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여나가는 호소로 전체 인민들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발표 40돐기념 평양시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발표 40돐기념 평양시보고회가 23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의 태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다.

보고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따라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발표 4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남조선 분렬주의자들의 반통일 적이고 매국배족적인 정체를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제 62(1973년) 6월 23일 혁신적인 연설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에서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아 조국통일 5대 방침을 천명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 5대 방침을 천명 하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 위업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에 의해 빛나게 계승발전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권방공화국창립방안을 우리 민족 모두

가 받아들여나가야 할 조국통일 3대 원칙으로 그 지위를 뚜렷이 정식화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 운동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유원을 절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 하시여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영도업적을 종합적으로 체계화 하시고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는 진로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넓은 포옹력과 대용량, 로숙하고 세련된 영도에 의하여 두차례의 혁신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15 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체택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선군의 위력으로 미제의 꿈길없는 군사적도발과 고립 암살책 등을 단호히 짓부서버리시며 우리 공화국을 불패의 정치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시여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튼튼한 담보를 마련 하시였다.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은 또 한분의 천 출위인 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여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줄기차게 전진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조국통일로선, 애국애족의 리념을 받아들여 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하는 것을 절대 불의의 의지로 삼으시고 온 민족이 자주통일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고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 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신 것은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사회주의 강성 국가건설위업을 끌어나가게 실현하며 조국통일의 혁신적인 혁제력을 다져온 것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증해 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백두의 천 출위인 이 신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자로 높이 모신 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행운이며 영광이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응고하고 수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로선과 방침을 절저히 관철해나갈 때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국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새세기 통일의 리정표이며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실천강령인 6.15 북남공동선언

과 10.4선언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오늘 미제와 남조선피뢰페당의 악랄한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북침전쟁소동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는 전쟁접경상태에 있으며 북남관계는 반목과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내외의 기대와 관심 속에 모처럼 열리게 되었던 북남당국 회담이 시작도 못해보고 파란된 것은 동족대결의식이 물수에 찬 피뢰페당의 고의적인 책동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피뢰페당이 우리 주민들에게

대한 유인 탐치와 반공화국인권모략 소동에 매달리고 있으며 남조선의 통일에 국제력을 탄압하면서 북남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미제와 피뢰페당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북침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국민에 이를 현실은 우리가 강위력한 자위적핵억제력을 다져온 것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증해 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백두의 천 출위인 이 신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자로 높이 모신 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행운이며 영광이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응고하고 수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로선과 방침을 절저히 관철해나갈 때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모두가 사회주의 강성 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하여 더욱 역세계 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회는 《조선은 하나다》 노래 주악으로 끝났다.

본사기자



별세 41년이 흘렀다. 하지만 수십 년 전 7.4공동성명이 발표되던 그날의 감격은 북파 남 우리 거제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나는 1972년 7월 당시 남조선 경기도 포천에서 운천재 건중학교 교장을 하고 있었다. 7월 4일이었다. 아침 10시에 무슨 중대 보도가 있다가에 나와 선생들, 학부형들, 학생들은 TV앞에 모여 앉아 초조와

긴장 속에 이제 나서거나 보도시간을 기다렸다. 정각 10시, TV화면에서 북파 남이 합의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이 세상에 공표되었다.

순간 숨막힐듯 한 정적을 깨며 장내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만세를 부르며 서로 부둥켜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어떤이는 얼굴을 쌔우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고 있었다.

어른, 아이 모두 학교 운동장에 달려나와 통일이 다 된 것처럼 『통일 만세!』를 외쳤고 주변 일대, 아니 온 남녘 땅이 홍분과 기쁨의 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어느 한 선생은 『이제 자주통일이 오는데 미국

돌들이 나가지 않고 배겨내나 보자』고 격양된 심정을 터놓았고 또 어느 학부형은 『이젠 반공교육을 걸어 치워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 학생은 『아, 우리도 이제는 백두산이나 금강산으로 수학 여행을 가게 된다』고 웃어

웃었다.

그날 저녁에 TV를 통해 이남전역의 분위기를 알 수 있었는데 서울과 부산, 제주도를 비롯하여 온 남녘 땅은 그야말로 통일 열기로 활화산이 터진 듯 하였다. 남조선의 신문과 방송 등 모든 언론에 체들이 7.4공동성명을 대서특필로 보도했고 각계층의 공동성명에 대한 반영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신문에 차넘치던 주먹만 한 활

자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7.4공동성명은 새 민족사의 서광, 『자주통일의 거보』, 『일제식민지 하에서 해방되던 1945년 8월 15일 조국광복의 감격을 재현하는 듯』…

어느덧 세월은 흘러 7.4공동성명발 표 당시의 목격자, 체험자들이 인생의 후반나이에 이르렀다. 나 역시 이제는 68살이지만 41년 전의 그 통일 열기로 해서인지 조국통일이라는 말만 나와도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향과 교단의 혈육들, 친지들과 함께 통일대행진에 나서고 싶은 충동을 금할 수 없다.

그날에 울리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힘있는 시대의 웨침은 아제와 오늘은 물론 통일의 그날까지 거제가 가슴깊이 간직하고 실천에 구현해나가야 할 소중한 통일의 기치라고 할 수 있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기초로 하여 혁신적인 6.15공동선언이 행성에 울려 퍼지고 환희와 진통의 오랜 과정을 거치며 북남관계는 지금의 시점에까지 왔다.

분열의 낸륜은 어언 70돌기를 가까이하고 있는데 통일은 이제 더 이상 거제의 소원으로만 남아 있을 수 없다.

북남관계에서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끝어야 한다.

41년 전 북파 남이 손을 맞잡고 7.4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처럼, 13년 전 6.15북남공동선언이 세상에 울려 퍼진 것처럼 이제 북파 남

은 다시 손을 맞잡고 불신과 대결의 검은 구름을 밀어내고 화해와 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안아와야 한다.

만나면 그것이 신뢰이고 통일에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

통일을 기원 하며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원

박사 정규진

변함 없는 조국통일의 초석

결하려는 것은 예속의 올가미를 스스로 자기 목에 거는것이나 다름없다.

사내와 외세의 존이 망국의 길이라는 것은 혁사를 통해 견종되는 진리이다.

민족자주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위업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맞게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풀어나갈 때에만 조국통일 운동은 실질적인 힘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

도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 그런 것만 우리 민족은 자주적립장에서 튼튼히 서서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한다.

민족분열의 장본인이고 통일의 암적존재인 외세는 우리 나라의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민족내부문제인 조국통일 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

도를 따라 확신성 있게 전진할 수 있다.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거제의 속원인 조국통일도, 민족의 존재와 발전도 기대 할 수 없다.

외세와 그에 추종해나선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항시적으로 핵전쟁의 겪은 구름이

조국통일 3대 원칙은 6.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결하고 있다.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피해를 입을 것은 우리 민족이고 그로 하여 어부지리를 얻을 것은 외세이다.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근본답보인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온 거제의 생존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민족대단결은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조국통일의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단결은 민족의 생존방식이며

조국통일 3대 원칙과 그 실천강령인

결하고 있다.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 그런 것만 우리 민족은 자주적립장에서 튼튼히 서서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한다.

민족분열의 장본인이고 통일의 암적존재인 외세는 우리 나라의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민족내부문제인 조국통일 운동을 외세에 의존하여 해

도를 따라 확신성 있게 전진할 수 있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은 6.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결하고 있다.

우리 민족자주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위업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맞게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풀어나갈 때에만 조국통일 운동은 실질적인 힘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

이다.

북남관계력사는 물론 세계외교사 어디에서

도 있어 본적이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번

이번에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 3대 원칙과 그 실천강령인

결하고 있다.

우리 민족자주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위업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맞게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풀어나갈 때에만 조국통일 운동은 실질적인 힘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

이다.

북남관계력사는 물론 세계외교사 어디에서

도 있어 본적이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번

이번에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 3대 원칙과 그 실천강령인

결하고 있다.

우리 민족자주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위업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맞게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풀어나갈 때에만 조국통일 운동은 실질적인 힘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

보처럼 마련된 북남당국회담이 무산된 것에 대해 지금은 거제는 아쉬움, 안타까움과 함께 회담을 파란시킨 남조선당국에 대한 불만과 적분을 토로하고 있다.

『당국대화』를 입이 많도록 떠들어온 남조선당국이 정작 대화마당의 문앞에서는 무슨 심보로 변덕을 부렸는가.

『신뢰를 기반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협의해 해결해나가겠다.』던 말은 어디다 두고 어째서 그 무슨 『경』 문제라는 말도 되지 않는 양랄로 북남당국회담을 파란시켰는가.

『대화의 창은 열려져 있다.』

면서도 개성공업지구실무자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공화국 방문은 무엇때문에 한사고 가로막고 있는가.

남조선당국은 이러한 거제의 분노에는 아랑곳없이 이제 와서는 북을 향해 『설실하게 당국대화에 힘해야 한다.』고 한다. 『당국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낯두꺼운 소리를 끝내고 있다.

말과 행동, 곁과 속이 다른 남조선당국의 변신은 카멜레온도 물고갈 정도이다.

남조선당국의 대화에 대한 그릇된 자세는 그들이 약방의 감초 마냥 내드는 『당국대화우선』론에도 여실히 짓들어있다.

『당국대화우선』론은 북남사 이에 제기되는 민간교류와 접촉, 협력사업들은 모두 당국대화에서 협의해결한 후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국대화우선》론은 대화부정론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되고 문제도 바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계면이다. 북은 남남갈등을 추구한 적도 없고 오히려 민간의 외교와 협력을 막아 남측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남남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남측당국이기 때문이다.

남조선당국이 『당국대화우선』론을 고집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북남관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간의 접촉과 대화, 협력을 막고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거제의 통일운동을 가로막자는 것이다.

사실 6.15를 맞으며 6.15공동 실천 북측위원회와 남측위원회가 합의한 북남공동행사보장을 위한 접촉과 대화가 진행되었더라면 6.15를 북과 남이 공동으로 기념하게 되고 그것이 악화된 북남 관계를 개선하는데도 이바지하여 거제의 통일열기도 더욱 뜨겁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무력대고 『당국대화가 우선』이라고 하면서 민간에서는 아예 마주앉아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를 폐쇄의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한차례의 기회도 차단되었고 6.15북남공동기념행사도 무산되었으며 통일분위기가 아니라

대결분위기를 고취시키였다. 그 것이 민간의 접촉과 대화를 가로막은 남측당국이 의도한 바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원래 민간의 자율적인 접촉과 대화를 당국이 나서서 가로막는 것은 나 아니면 안된다는 독재 『정권』의 고질적인 못된 발상이고 버릇이다.

남조선에서 지난 시기 독재 『정권』들이 『대화창구일원화』를 부르짖으면서 민간급의 접촉과 대화, 북남통일행사들을 악랄하게 가로막아 거제의 규탄을 받았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 남조선당국의 『당국대화우

선』론은 바로 이전 독재자들이 추구한 대화독점론, 동족대결론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러한 『당국대화우선』론은 통일문제의 거족적인 성격에도 맞지 않는 천부당만부당한 궤변

자는 것이다.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한 대화는 당국이 독점할 수 있고 독점하여서도 된다.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민족의 소원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쉽게 이루어 질 수 없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나라가 분열되어 근 70년이 되도록 아직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비극적 현실이 이

것은 거제의 통일열기로 더욱 활발히 진행하

야적으로 매달렸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6공』독재자도 앞에 서는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도 돌아앉아서는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외세의 반공화국핵소동에 편승하고 침략적인 『팀 스피리트』 합동군

이처럼 남조선의 혁대 보수 『정권』들은 북남관계를 저들의 집권안정과 통치위기로 몰아갔다.

『문민』의 탈을 쓰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패륜아 김영삼 역시 북남합의문을 혼신 짜고도 돌아앉아서는 북남대통령으로서 초상집에 불을 지르고 5년간 대화공백기로 만들었다.

남조선당국은 그 무엇으로 써도 북남대화를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위기로 몰아온 혁대 죄악의 책임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늘의 시점에서 그릇된 판행을 깨야 할 당사자는 바로 남조선당국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려는 공화국의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

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동족대결의 못된 악습부터 벼려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6.15 10.4 공동선언 이행하라

당국간 대화재개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리명진

마찬가지로 『전시립북자』 문제를

또 하나의 『북인권문제』로 부각

시켜 어떻게 해서나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반공

화국대결분위기를 더욱 고취하자는

것이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야말로 동족을 모해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모략의 능수들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혁사의 진실은 그 무엇으

로써도 가리울 수 없고 외곡할 수도

없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반공화국모략

소동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차례질

것은 민족의 더 큰 분노와 혁사의 준

엄한 심판뿐이다.

김철호

23일 남조선의 인터

네트워크 『뉴스』

가 파거 일본이 수많은

녀성들을 강제로 일본

군성노에로 끌어간 사

실을 펼쳐놓는 한 일본

신문의 보도기사내용

을 질렀다.

그에 의하면 일본 내

각관방 심의실이 파거

성노에법죄에 대한 조

시결과를 발표할 당시

관련심의기록에 일본

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들

어있었다고 한다.

또한 일본군이 인도

네시아수용소에 억류

되어있던 네메를란드

녀성들을 강제연행한

후 위협공갈하며 성노

에 생활을 강요한 사실

도 많아졌다.

성노에법죄의 진상이

새로 폭로된 것과 관련

하여 일본의 한 의원은

『아베내각이 2007년

답변서를 즉각 철회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리광성

의 어리석은 목적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범죄적 목적이 산물이다.

북남당국대화가 무산된 이후 남조선당국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반복암박공조에 더욱 혈안이 되고 지어 신성시해야 할 북남수뇌상봉담화를 세상에 공개하는 최고의 도발과 망동까지 부린 것은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회피하고 대결을 더욱 지속시키려는 그들의 진면모를 날낱이 고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암박과 제재가 북에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다. 암박과 제재는 반발을 낳고 북남관계를 더욱 고이하게 하며 종당에는 충돌과 전쟁밖에 물어올 것이 없다는 것은 지나온 날들이 충분히 가르쳐주었다.

북은 이미 대화에도 다같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거듭 명백히 천명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긴장 격화를 바지 않는다면 모처럼 대회를 개최하는 북의 국민을 가로막아나서지 말아야 한다. 대화는 북과 남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민족과 통일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남측은 비틀어진 대화자세를 바꾸어야 하며 부당한 『당국대화우선』론을 걷어치워야 한다.

그렇게 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남조선당국이 시대착오적이며 행정적인 동족대결정책을 버리느냐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정혁

잘못된 대결관행을 벼려야 한다

화에 관심이나 있는 듯이 놀라다가도 뒤에 돌아앉아서는 북과 남이 합의하고 서명한 합의문도 서슴없이 차버리고 반공화국대결책동을 강화하는 도발행위로 풀어놓았다.

남조선의 이전 『유신정권』이 7.4공동성명에 도장을 찍고 6월인왕항쟁을 벌였을 때에는 마치 북남대

대회를 개최하고자 했던 것과 같은 무례한 악만행 위로 대결과 대화를

제기되었다. 『대회에는 경쟁』을 부른다며 『경쟁』을 치루어 대결과 대화를

제기되었다. 『경쟁』을

쿠데타로 솟아난 《정권》

최근 《정보원대 선거개입사건》의 충격으로 남조선의 사회 각계가 불도가 아니나마 끊어버리고 있다.

알려진 바이지만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일어난 《정보원녀직원사건》이었다.

당시 남조선정보원의 한 여직원은 3개월 동안이나 수십여개의 가명을 번갈아 써가며 애당의 《대통령》후보를 비방 중상하는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다가 애당성원들에게 적발되어 경찰에 구속되었다.

사건발생 초기 정보원은 문제의 여성 자체 직원이 아니라고 벤더스럽게 부인하다가 사건조사가 점점 심화되자 애당후보를 비방하는 여론조작은 전혀 한적이 없다는 유치한 변명으로 밀 CONTRIBUTORS

하였다. 그런데도 남조선경찰은 리명박당국의 압력과 조종밀에 《대선》을 며칠 앞두고 《협의가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사건은 흐지부지되어 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자루속의 송곳은 감추지 못하는 법이다.

그후 사건수사에 참가하였던 경찰관에게 자가 수사과정에 상급으로부터 증거자료들을 은폐하고 수사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중간수사결과는 각본에 따른 것이라고 푸로하면서 《정보원

대선개입사건》은 단순한 선거개입 사건이 아니라 특대형 정치협조사건으로 번져져 남조선민심을 격앙시켰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이 사건이 정보원의 직접적인 개입과 조작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자료들이 속속 폭로되고 있다.

얼마전 발표된 남조선검찰의 수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전 정보원 원장 원세훈은 지난해 《대선》 당시 직원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애당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내돌리도록 지시하였으며 전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김용판은 《정보원대 선거개입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정보원이 기단하였다는 범죄자료들을 축소, 은폐하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하여 지난 《대선》 결과는 보수세력이 입이 짧도록 떠드는 《민의》의 결과물이 아니라 온갖 사기와 협잡, 권모술수의 산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남조선 각계가 분노를 금치 못하며 지난해 12월 부정선거가 《총선없는 쿠데타》라며 현 진진세력을 규탄배격해나서고 있는 것은 우연한 것이다 아니다.

문제는 이 사건을 대하는 현 남조선 집권세력의 태도이다. 《정보원녀직원사건》이 터졌을 당시 현 남조선당국자는 직접 나서서 《선거

개입증거가 없다》, 《민주당이 대국민 사기를 쳤다》, 《사실이 아닌 경우 나를 읊어한 민주당과 문재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떠들면서 《사생활침해》니, 《인권유린》이니 하며 이 사건을 애당후보공격의 무기로 삼았었다.

그러던 그가 정보원의 선거개입이 엄연한 사실로 판명된 지금에 와서는 시치미를 떼면서 원세훈과 몇몇 하급줄개들을 정치적제물로 삼아 사건을 무마해보려고 급급해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만 사람을 격분케 하는 것은 《정보원대 선거개입사건》의 내막이 드러나 《정권》이 통제로 뒤틀리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2007년 북남수뇌상봉당화록을 전면 공개하는 천하망동 짓까지 감행한 것이다.

사실들은 부정선거로 권력을 나누어 챙기며 남조선 《정권》이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썩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죄를 지었으면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지 않고 계속 빌미만 하면서 이 목을 떠나려고 오그랑수를 계속 쓴다면 성난 민심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분노한 민심의 폭발을 막을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

권지혜

최근 남조선에서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과 그를 축소, 은폐하려는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는 각계의 분노와 규탄의 함성이 높아가고 있다.

20일 리화너자대 학교와 경희대학교의 대학생들이 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한데 이어

21일과 22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21세기 한국 대학생련합》의 대학

생들과 시민들이 또 다시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초불을 들었다.

이들만이 아니다.

남조선교회단체들도 정보원과 수사기관,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

을 발표하고 거리에 펼쳐나섰다.

권력의 손발 노릇이나 하고 있는 정보원과 이를 적극 비호 두둔하는 현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항의이고 분노의 폭발이라고 할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정보원대 선거개입사건》이란 지난 해 《대통령선거》 때 정보원이

간접선거를 통해 밝혀지기 마련이다. 마침내 전 정보원

원하여 인터넷에 애당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현 남조선집권자의 당선에 도움을 준 사건을 말한다.

당시 남조선경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파헤칠 것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와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사건수사에 나섰으나 진상을 밝히기

는 커녕 이들의 범죄행위를 말한다.

20일 리화너자대 학교와 경희대학교의 대학생들이 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한데 이어

21일과 22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21세기 한국 대학생련합》의 대학

생들과 시민들이 또 다시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초불을 들었다.

이들만이 아니다.

남조선교회단체들도 정보원과 수사기관,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

을 발표하고 거리에 펼쳐나섰다.

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정보원이 《새누리당》에 개입하여 보수 《정권》 연장에 가담한 것은 과거 《유신》 독재시대를 부활시켜보려는 특대형 정치깡패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경찰을 내몰아 최루액 까지 쏘아내며 시위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경

우 《정권》 장악을 위해 비열한 수단과 방법에 매여 달린 저들의 추악한 범죄행위가 드러나는데 당황해 났기 때문이다. 경찰의 가혹한 탄압만행으로 한 고등학생이 시위현장에서 실신하고 수많은 사람들

이 련행되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자주, 민주,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 수 없다.

보수세대가 남조선 각계총연합에 대한 탄압의 도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저들의 파쑈적 정체만을 더욱 드러내게 될 것이다.

정보원이라는 권력기관

였다. 그리고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해버리고 말았다.

《새누리당》은 경찰의 중간수사결과에 폐재를 올리면서 《녀성에 대한 인권침해, 인권유린》이니 뭐니 하며 이를 애당후보를 공격하는데 썩어졌다.

하지만 진실은 어느 때 가서든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다. 마침내 전 정보원

이를 통해 밝혀지기 마련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총연합이 경찰의 영리조사에 항의하고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투쟁에 멀쳐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정보원이라는 권력기관

이를 통해 밝혀지기 마련이다.

4 1 차례의 경기에서 110여개의 꽃 기록

* 보천 보해 불상체 육경기 대회 축구(1급) 1차원 맹전 진행 *

축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이 기대와 관심 속에 지난 5월 20일에 시작된 보천 보해 불상체 육경기 대회 1급팀들의 축구 1차원 맹전 경기가 막을 내리었다.

보천 보해 불상체 육경기 대회 축구 경기도 앞서 진행한 만경대 상체 육경기 대회 축구 경기와 마찬가지로 1차와 2차 경기 성적을 종합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이번 1차경기에서는 여느 때보다 많은 꽃이 기록되었는데 매일 평균 10여개의 꽃이 났다.

지난 6월 11일 하루에만

도 무려 21개의 꽃이 기록되었는데 3번째로 떨어진

4. 25팀과 경공업 성립 사이의 경기에서는 전반전 3분 경

에 첫 득점이 이루어진 후

7분, 11분, 33분 경에 득점이 이루어져 전반전에 모두 4개의 꽃이 났다. 이것은 이번 1차경기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꽃이 난 것으로 된다.

1차경기에서의 득점에 대해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에 41차례의 경기에서 도합 110여개의 꽃이 났다. 이것은 매 경기에서 평균 2.9개

의 꽃이 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만으로도 4월 경기 이후 선수들의 사기가 비상히 높아지고 모든 경기들이 활기 있게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치열하게 벌어진 보천 보해 불상체 육경기 대회 1급 축구 1차 남자 경기에서는 6승 2무 승부 1패를 기록한 해불팀이 단연 첫 자리를 차지하였다. 2위는 4. 25팀이, 3위는 암록 강팀이 하였다. 4위로부터 7위까지의 순위는 경공업 성립, 평양팀, 월미도팀, 기관

차팀이 차지하였다.

한편 여자 경기에서는 리명 수팀이 첫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소백수팀은 2등을, 월미도팀은 3등을 하였다. 암록 강팀은 4등을, 평양팀은 5등을, 청천 강팀은 6등을 하였다.

1차경기가 결속된 데 이어 지금은 2차경기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2차경기는 전면 맹전으로 진행된 1차 경기 때와는 달리 조별 맹전과 승자전으로 승부를 겨루게 된다.

본사기자



리상적인 기능성식품 개성 고려인 삼밀 가루

조선 장수무역 회사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고려 약재인 개성 고려인 삼에 들어 있는 유용성분을 밀가루와 혼합하여 영양학적 및 약리학적 가치가 큰 천연 강식품 - 개성 고려인 삼밀 가루를 만들었다.

개성 고려인 삼에는 인삼, 포도, 당류, 정유, 아미노산과 펩타드, 유기산, 광물질 및 미량원소, 비타민이 풍부히 들어 있다. 이 성분들은 서로 긴밀한 협력작용으로 몸 안에서 조화로운 대사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주면서 면역 강화작용과 함께 혈액 순환 개선, 항암 및 항산화 등의 광폭약리 작용을 나타낸다.

밀가루에 개성 고려인 삼의 약리기능성을 부여한 개성 고려인 삼밀 가루는 정신적 및 육체적 피로를 빨리 회복시키고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물리적 및 화학적 요인 특히 전자기파나 방사선피해로부터 유기체를 보호해 준다.



어떤 사람이 친구의 집에 갔는데 친구는 그가 오래간 만에 왔다고 텁을 잡아 상을 차려주고는 자기는 볼 일이 있다고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혼자서 달리를 막 뜯어 먹고 있는데 방안에서 놀던 친구의 아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손님은 죽은 고기를 잘 잡수시는군요』
『뭐 죽은 고기?』 하더니

『죽은 닭고기』

니 손님은 (아마 죽은 닭이 있어 나에게만 대접하고 자기는 먹지 않는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하고는 밥상에

하였다. 쓴맛을 가진 남새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부루, 말미나리, 유자, 민들레, 배합 등이다.

③ 도마도국

여름철에 도마도국을 많이 먹으면 영양분과 수분을 함께 보충 할 수 있다. 도마도국에 들어 있는 리코펜은 전위선암을 예방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하므로 특히 남자들이 많이 먹으면 좋다.

④ 오리고기

여름철에 영양보충을 잘해야 하는데 오리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 오리고기는 단백질을 비롯하여 영양가가 풍부할 뿐 아니라 병을 예방치료 할 수 있다. 그 비결은 오리고기가 고려의 학자에 말하듯이 『성질이 서늘하다.』는데 있다. 미열이 있거나 몸이 허약한 사람, 식사를 적게 하거나 변비증이 있는 사람들은 오리고기를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오리고기를 햄, 해삼과 함께 만든 료리 그리고 오리고기를 네일 그늘에 걸린 사람들은 더위를 해소하고 열을 내리우며 정신을 깨우고 위를 틀튼하게 하는 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하였다. 쓴맛을 가진 남새는 기를 보하고 콩팥과 비장을 튼튼하게 하며 습기를 없애는 작용을 함으로써 인체기능의 평형을 맞춘다고 하였다. 현대 과학도 알카로이드, 아미노산, 비타민, 광물질이 많이 들어 있는 쓴맛을 가진 남새가 더위를 해소하고 열을 내리우며 정신을 깨우고 위를 틀튼하게 하는 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하였다.

본사기자

하였다. 쓴맛을 가진 남새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부루, 말미나리, 유자, 민들레, 배합 등이다.

③ 도마도국

여름철에 도마도국을 많이 먹으면 영양분과 수분을 함께 보충 할 수 있다. 도마도국에 들어 있는 리코펜은 전위선암을 예방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하므로 특히 남자들이 많이 먹으면 좋다.

④ 오리고기

여름철에 영양보충을 잘해야 하는데 오리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 오리고기는 단백질을 비롯하여 영양가가 풍부할 뿐 아니라 병을 예방치료 할 수 있다. 그 비결은 오리고기가 고려의 학자에 말하듯이 『성질이 서늘하다.』는데 있다. 미열이 있거나 몸이 허약한 사람, 식사를 적게 하거나 변비증이 있는 사람들은 오리고기를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오리고기를 햄, 해삼과 함께 만든 료리 그리고 오리고기를 네일 그늘에 걸린 사람들은 더위를 해소하고 열을 내리우며 정신을 깨우고 위를 틀튼하게 하는 가능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하였다.

본사기자

하였다. 쓴맛을 가진 남새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부루, 말미나리, 유자, 민들레, 배합 등이다.

③ 도마도국

여름철에 도마도국을 많이 먹으면 영양분과 수분을 함께 보충 할 수 있다. 도마도국에 들어 있는 리코펜은 전위선암을 예방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하므로 특히 남자들이 많이 먹으면 좋다.

④ 오리고기

여름철에 영양보충을 잘해야 하는데 오리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 오리고기는 단백질을 비롯하여 영양가가 풍부할 뿐 아니라 병을 예방치료 할 수 있다. 그 비결은 오리고기가 고려의 학자에 말하듯이 『성질이 서늘하다.』는데 있다. 미열이 있거나 몸이 허약한 사람, 식사를 적게 하거나 변비증이 있는 사람들은 오리고기를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오리고기를 햄, 해삼과 함께 만든 료리 그리고 오리고기를 네일 그늘에 걸린 사람들은 더위를 해소하고 열을 내리우며 정신을 깨우고 위를 틀튼하게 하는 가능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하였다.

본사기자

하였다. 쓴맛을 가진 남새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부루, 말미나리, 유자, 민들레, 배합 등이다.

③ 도마도국

여름철에 도마도국을 많이 먹으면 영양분과 수분을 함께 보충 할 수 있다. 도마도국에 들어 있는 리코펜은 전위선암을 예방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하므로 특히 남자들이 많이 먹으면 좋다.

④ 오리고기

여름철에 영양보충을 잘해야 하는데 오리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 오리고기는 단백질을 비롯하여 영양가가 풍부할 뿐 아니라 병을 예방치료 할 수 있다. 그 비결은 오리고기가 고려의 학자에 말하듯이 『성질이 서늘하다.』는데 있다. 미열이 있거나 몸이 허약한 사람, 식사를 적게 하거나 변비증이 있는 사람들은 오리고기를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오리고기를 햄, 해삼과 함께 만든 료리 그리고 오리고기를 네일 그늘에 걸린 사람들은 더위를 해소하고 열을 내리우며 정신을 깨우고 위를 틀튼하게 하는 가능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하였다.

본사기자

하였다. 쓴맛을 가진 남새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부루, 말미나리, 유자, 민들레, 배합 등이다.

③ 도마도국

여름철에 도마도국을 많이 먹으면 영양분과 수분을 함께 보충 할 수 있다. 도마도국에 들어 있는 리코펜은 전위선암을 예방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하므로 특히 남자들이 많이 먹으면 좋다.

④ 오리고기

여름철에 영양보충을 잘해야 하는데 오리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 오리고기는 단백질을 비롯하여 영양가가 풍부할 뿐 아니라 병을 예방치료 할 수 있다. 그 비결은 오리고기가 고려의 학자에 말하듯이 『성질이 서늘하다.』는데 있다. 미열이 있거나 몸이 허약한 사람, 식사를 적게 하거나 변비증이 있는 사람들은 오리고기를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오리고기를 햄, 해삼과 함께 만든 료리 그리고 오리고기를 네일 그늘에 걸린 사람들은 더위를 해소하고 열을 내리우며 정신을 깨우고 위를 틀튼하게 하는 가능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하였다.

본사기자

하였다. 쓴맛을 가진 남새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부루, 말미나리, 유자, 민들레, 배합 등이다.

③ 도마도국

여름철에 도마도국을 많이 먹으면 영양분과 수분을 함께 보충 할 수 있다. 도마도국에 들어 있는 리코펜은 전위선암을 예방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하므로 특히 남자들이 많이 먹으면 좋다.

④ 오리고기

여름철에 영양보충을 잘해야 하는데 오리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 오리고기는 단백질을 비롯하여 영양가가 풍부할 뿐 아니라 병을 예방치료 할 수 있다. 그 비결은 오리고기가 고려의 학자에 말하듯이 『성질이 서늘하다.』는데 있다. 미열이 있거나 몸이 허약한 사람, 식사를 적게 하거나 변비증이 있는 사람들은 오리고기를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오리고기를 햄, 해삼과 함께 만든 료리 그리고 오리고기를 네일 그늘에 걸린 사람들은 더위를 해소하고 열을 내리우며 정신을 깨우고 위를 틀튼하게 하는 가능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하였다.

본사기자

하였다. 쓴맛을 가진 남새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부루, 말미나리, 유자, 민들레, 배합 등이다.

③ 도마도국

여름철에 도마도국을 많이 먹으면 영양분과 수분을 함께 보충 할 수 있다. 도마도국에 들어 있는 리코펜은 전위선암을 예방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하므로 특히 남자들이 많이 먹으면 좋다.

④ 오리고기

여름철에 영양보충을 잘해야 하는데 오리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 오리고기는 단백질을 비롯하여 영양가가 풍부할 뿐 아니라 병을 예방치료 할 수 있다. 그 비결은 오리고기가 고려의 학자에 말하듯이 『성질이 서늘하다.』는데 있다. 미열이 있거나 몸이 허약한 사람, 식사를 적게 하거나 변비증이 있는 사람들은 오리고기를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오리고기를 햄, 해삼과 함께 만든 료리 그리고 오리고기를 네일 그늘에 걸린 사람들은 더위를 해소하고 열을 내리우며 정신을 깨우고 위를 틀튼하게 하는 가능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하였다.

본사기자

하였다. 쓴맛을 가진 남새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부루, 말미나리, 유자, 민들레, 배합 등이다.

③ 도마도국

여름철에 도마도국을 많이 먹으면 영양분과 수분을 함께 보충 할 수 있다. 도마도국에 들어 있는 리코펜은 전위선암을 예방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하므로 특히 남자들이 많이 먹으면 좋다.

④ 오리고기

여름철에 영양보충을 잘해야 하는데 오리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 오리고기는 단백질을 비롯하여 영양가가 풍부할 뿐 아니라 병을 예방치료 할 수 있다. 그 비결은 오리고기가 고려의 학자에 말하듯이 『성질이 서늘하다.』는데 있다. 미열이 있거나 몸이 허약한 사람, 식사를 적게 하거나 변비증이 있는 사람들은 오리고기를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오리고기를 햄, 해삼과 함께 만든 료리 그리고 오리고기를 네일 그늘에 걸린 사람들은 더위를 해소하고 열을 내리우며 정신을 깨우고 위를 틀튼하게 하는 가능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하였다.

본사기자

하였다. 쓴맛을 가진 남새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부루, 말미나리, 유자, 민들레, 배합 등이다.

③ 도마도국

여름철에 도마도국을 많이 먹으면 영양분과 수분을 함께 보충 할 수 있다. 도마도국에 들어 있는 리코펜은 전위선암을 예방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하므로 특히 남자들이 많이 먹으면 좋다.

④ 오리고기

여름철에 영양보충을 잘해야 하는데 오리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 오리고기는 단백질을 비롯하여 영양가가 풍부할 뿐 아니라 병을 예방치료 할 수 있다. 그 비결은 오리고기가 고려의 학자에 말하듯이 『성질이 서늘하다.』는데 있다. 미열이 있거나 몸이 허약한 사람, 식사를 적게 하거나 변비증이 있는 사람들은 오리고기를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오리고기를 햄, 해삼과 함께 만든 료리 그리고 오리고기를 네일 그늘에 걸린 사람들은 더위를 해소하고 열을 내리우며 정신을 깨우고 위를 틀튼하게 하는 가능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